

대한제당 60년 역사

- 1
- 2
- 3
- 4



1956~1978

‘사업보국’과 창업주 인송 설경동 회장

고 인송 설경동 회장은 ‘사업보국’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기간 산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1946년 대한산업(주), 1953년 대한방직(주), 1955년 대한전선(주)를 설립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대한제당 전신 ‘대동제당’ 설립

1956년 7월 설립한 대동제당(주)는 이전까지 외국 수입에 의존하던 설탕을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국민 식생활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1969년에는 대한제당(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업계 최초로 KS 인증을 받으면서 국내 3대 설탕 메이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천제당과 사료공장 준공, 품질 경쟁력 확보

대한제당은 1979년 일일 생산 1,000톤 규모로, 전 공정 자동화 설비를 갖춘 인천 제당 공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당 창고를 준공했습니다.

또한 인천 사료공장을 준공해 사료사업에도 진출, 우수한 품질과 선진 사양기술을 사양가들에게 제공하면서 ‘품질을 파는 대한제당’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했습니다.

1981년 설탕 생산 연 100만 톤을 달성하고 수출 1억불 탑을 수상했으며, 1983년에는 국내 업계 최초로 사료 판매 연 100만 톤을 달성했습니다.

1979~1984



대한제당 60년 역사

- 1
- 2
- 3
- 4



1985~1988

‘열린 경영’으로 일궈낸 눈부신 성장

1985년 취임한 설원봉 사장은 ‘열린 경영’을 토대로 구성원 화합에 역점을 두는 한편, 백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내실을 다졌습니다.

창립 30돌을 맞은 1986년에는 중앙연구소의 전신인 기술연구소를 세웠으며, 설탕과 사료 모두 연 200만 톤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1988년 7월에는 울산에 무지개사료 제2공장을 준공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일궈나갔습니다.



1989~1995

생산 인프라와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부제와 책임경영 체제 확립

대한제당은 사료사업에서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도 화학사업에 진출했습니다. 1991년에는 잠실사육을 건립하고, 옥산공장을 준공했으며, 1992년 광주공장, 1995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아산항에 대단위 곡물터미널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에 진출하여 생산 공장을 세우는 등 세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편 사업부제를 정착시키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대한제당 60년 역사

- 1
- 2
- 3
- 4



無감봉, 無감원, 無분규의
'3無 경영' 신화

21세기를 앞두고 대한제당은 운송업, 건설업, 금융업, 레저산업, 외식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996년에는 천진채홍사료유한공사를 설립, 국내 사료업체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IMF외환위기가 닥치자 기술서비스 우위 판매 전략과 생산성 향상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며, 당시 무감봉, 무감원, 무분규, '3무 경영' 신화를 이룩하여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1996~1999

2000~2006

밀레니엄 시대의 비전, 드림 2010선포

대한제당은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새로운 비전을 제정하는 '드림2010'을 선포했습니다. 대한제당과 관계사들은 그간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신규 사업을 모색하고, 각 사업 부문은 협력과 경쟁을 통해 고객의 참 행복을 추구하는 으뜸기업으로서 우뚝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제당 60년 역사

- 1
- 2
- 3
- 4



2007~2012

미래경영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

현재 대한제당은 지속 가능 경영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당부문은 설탕 누적 생산 1,500만톤 달성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고 있으며, 축산부문은 세계 유수의 축산·수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우수한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장 진출, 인재개발원 개원

2008년 대한제당은 빈혈치료제 ‘아로포틴’을 발매하고 해외 제약회사들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국제적으로 바이오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경기도 안성에 첨단 시설을 갖춘 TS인재개발원을 설립해 ‘인화, 창의, 성실’의 사훈을 근간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2013~현재

